

보고~듣고~만들며~ '나만의 겨울' 찾아라



ACC재단 어린이창작실험실 겨울방학 프로그램

"겨울에 숨어 있는 모양은 어떤 걸까요? 나만의 겨울 모양을 상상하고 신나는 놀이와 이야기 가득한 겨울 모험을 떠나보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ACC재단)은 내년 1월10일부터 2월14일까지 ACC어린이문화원과 어린이창작실험실에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겨울 모양?!'을 주제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겨울 이야기 속으로 ▲겨울 놀이 속으로 ▲겨울 느낌 속으로 3개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총 11종의 문화예술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야기와 놀이, 감각을 통해 겨울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어린이들이 겨울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아시아의 새해를 살펴보는 '새해는 언제 시작될까?'는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진행 중인 특별전시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신나는 그림책 모험'과 연계해 가족이 함께 특별한 새해를 맞이하도록 준비했다. 그림책 이야기를 중심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다양한 문화를 알아보고, 우리 가족의 나우 리즈 모험을 만들어보는 활동이다.

2-3세 영유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추운 겨울, 따뜻한 뱃속, 춤추는 우리'는 엄마 뱃속을 빛과 소리 등 다양한 감각으로 느껴보는 참여형 퍼포먼스 워크숍으로, 어린 자녀를 둔 가족에게 특별한 겨울 추억을 선사한다.

AI를 주제로 한 특별 프로그램도 개설했다. 광주



영·유아 대상
내년 1월10일부터
2월14일까지



시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파이보와 같이해요!'는 AI를 활용해 로봇 연극 연출자를 체험할 수 있다. 이어 '생성형 AI와 함께하는 아시아 동화 여행'은 내 얼굴과 목소리를 활용해 나를 닮은 캐릭터로 동화책을 만들 수 있다.

특히 내년 2월11일 초청강연 프로그램 '별별작업탐구'에서는 카카오프렌즈 이모티콘 캐릭터와 싸이 강남스타일 캐릭터를 제작한 권순호(호조) 캐릭터 디자이너가 강연자로 나서 생동감 있는 직업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울러 어린이창작실험실 창작라운지에 조성된 '겨울 판타지'를 통해 어린이가 동만 한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오라카캠핑 여행 경험을 즐길 수 있다.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강의별로 유·무료로 진행되며, 수강 신청은 내년 1월2일부터 ACC재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새로운 시선으로 탐험하는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이 쑥쑥 자라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어린이 가족 단위 프로그램들로 온 가족이 예술로 공감하고 하나되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일제강점기 '흥학관', 예술공간으로...

150석 규모 음악전용소극장

일제강점기 광주학생독립운동의 근원지이자 광주·전남 문화예술과 체육의 장으로 활용됐던 '흥학관'이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불로동 4거리 일원에 자리잡은 '아트스페이스 흥학관'(동구 문화전당로 35번길 16-4번지)이다.

흥학관은 1920년대 광주 청년들의 교육·문화·예술 수양 목적으로 건립된 곳으로, 강연과 공연 등이 진행됐다.

주국전 아트스페이스 흥학관 대표는 "옛 흥학관의 정신과 의미를 계승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했다"며 "광주 문화예술의 맥이 끊기지 않기를 바라며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이 공연장을 마련했다"고 개관 목적을 밝혔다.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은 클래식과 재즈에 적합한 음악전용소극장이다. 150석 규모의 연주홀로 폴사이드 그랜드 피아노와 최고 수준의 음향과 조명 시설이 갖춰졌다.

개관을 기념하는 연주회도 준비돼 있다. 27일과 28일 오후 7시에는 각각 재즈 기타 테크닉 강령조 그룹,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자 짐스데로 초청 무대가 펼쳐진다.

/최명진 기자



사진기록으로 담아낸 동시대 광주 미술인 삶·예술

리얼친 사진전, 내년 1월31일까지 송정작은미술관

20여년 간 동시대 광주 예술가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해오고 있는 리얼친 사진작가의 전시가 마련됐다.

내년 1월31일까지 송정작은미술관에서 열리는 'The Memories of Time-광주미술인 사진기록 I'이다.

작가가 촬영한 광주 미술인 188명의 인물사진을 수록한 양장본 사진집 출판 기념 전시로, 이들의 삶과 예술세계를 느껴볼 수 있는 자리다.

284쪽 분량으로 제작된 사진집은 이 도시의 어느 시절을 반추해내는 기록 자료로써 지역 문화사를 엮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진집 출간은 지난 20여 년 노력에 방점을 찍는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일련의 사진 작업은 수많은 문화예술계 활동 가운데 현장을 찾고, 누구와

만나서 소통하고, 기록할 만한 순간과 모습을 포착해 사진으로 담고, 수백 컷씩 담아온 사진 가운데 남길 만한 것을 선별하고, 그 시간과 장소와 주인공을 메모하고, 인물 별로 의식을 갖고 얽힘이 공을 들여야 하는 무한한 일거러다.

이렇게 찍은 60만여 장의 결과물은 광주 미술역사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 왔다. 기록의 결과물을 사유화하지 않고 미술인의 공동자산으로 남겨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묻어나 있다.

작가는 "여러 사정으로 이번 작품집에 미처 수록하지 못한 훌륭한 작가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라며 "1집 출간 이후 바로 2집 준비 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때까지 넓은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생활문화 꽃 피우다... '아름다운 시작'展

동구생활문화동아리, 31일까지 무등갤러리

"동구생활문화동아리가 펼치는 따뜻한 연말 특별전시 보고 가세요!"

26일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은 "제1회 동구생활문화동아리 오피스갤러리 특별전 '아름다운 시작'이 오는 31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에는 동구생활문화동아리 연합회 전시분과 소속 11개 동아리가 오피스갤러리를 통해 선보인 작품 중 우수작품 15여점을 선별해 선보인다.

'오피스갤러리'는 동구문화관광재단 사무실 유휴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해 동구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등 생활문화예술인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시에는 ▲서사모 ▲한글사상서예회 ▲서사모문인화 ▲펜셀스케치 ▲동구마루서각회 ▲품새캘리그래피 ▲모아미래도보통씨 ▲호남풍류학회 ▲빛그늘송연회 ▲고은캘리동호회 ▲구상화화반이 참여했다.

문장현 재단 대표이사는 "연말에 열리는 이번 전시가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 2022. 4. 26

